

사회

안내판조차 없는 항일운동 사적지

광주 26곳 중 원형보존 1곳 뿐... 대부분 흔적도 찾기 어려워

학생독립운동기념관 등 관람객 외면

‘의향(義鄕) 광주’의 항일 독립운동 역사를 담은 사적지 상당수가 그 흔적을 찾기 어렵거나 방치되고 있다.

는 곳은 양림동 소재 광주시 유형문화재 26호 ‘오웬기념각’(문화활동 등을 통해 항일 정신을 고취한 오웬 선교사의 활동 무대가 된 곳)이 유일하다.

최근 항일독립운동단체와 학계 등이 실시한 실지조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광주·전남 지역 항일 독립운동 사적지는 모두 168개소, 이 가운데 광주에는 죽림 김태원 장군 동상을 비롯해 26곳이다.

14일 광복회 등 관련단체들은 이 가운데 지금까지 원형이 보존되고 있

는 곳은 양림동 소재 광주시 유형문화재 26호 ‘오웬기념각’(문화활동 등을 통해 항일 정신을 고취한 오웬 선교사의 활동 무대가 된 곳)이 유일하다. 다른 사적지들은 사라지거나 방치된 가운데 상당수는 안내판조차 설치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관리해야 할 보존청의 태도는 미온적이다. 광주지방보훈청은 광주 3·1독립운동기념탑 등 17개 시설을 현충시설로 지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시설 소재 기관에 관리를 떠넘기고 있다.

항일 독립운동단체의 한 관계자는 “보훈청이 6·25 관련 업무에만 치중하 나머지 현충시설이 지정돼 있어서 현충탑 등이 중심이 되는 등 편중돼 있고, 항일 독립운동 사적지와 관련해서는 소홀한 면이 없지 않다”고 아쉬워했다.

관련단체들은 항일 독립운동 관련 사적지에 대한 관리 미흡이 자라나는 차세대 역사의식 부재로 이어질까 걱정하고 있다. 한일 축구경기 등 스포츠에만 관심을 쏟는 청소년들이 자

칫 잘못된 역사인식에 호도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광주학생운동을 중심으로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기념과 교육을 주도하고 있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역사관조차 특별프로그램기간 외에는 기념관을 찾는 관람객의 발길이 뜸하다.

이곳에서 역사교육특별전으로 열리고 있는 ‘거대한 감옥, 식민지에 살다’의 안내를 맡고 있는 윤준순(79)씨는 “좋은 시설을 갖춰 놓고도 많은 이들이 찾지 않아 안타깝다”라며 “잊혀져 가는 오욕의 역사를 되새기고, 올바른 한일관계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어린 학생들이 많이 찾아와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檢, 성폭행범 첫 ‘화학적 거세’ 청구

법원 결정 따라 성욕 억제제 최장 15년 투여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구본선)는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표모(30)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청구는 속칭 ‘화학적 거세법’으로 불리는 ‘성폭행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에 의한 거세법’이 지난해 7월 시행된 이후 검찰이 법원에 치료 명령을 청구한 첫번째 사례다.

검찰에 따르면 바리스타인 표씨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간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0대 중반의 여성 청

소년 5명과 6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친 뒤 이들의 얼굴 사진, 성관계 동영상 등을 인터넷 등에 퍼뜨리겠다고서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표씨는 검찰 조사에서 성충동 조절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며, 감정결과 성욕 과잉 장애(성도착증)로 진단됐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면 표씨가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 집행이 개시돼 성호르몬 생성을 억제·감소시키는 약물을 최장 15년까지 투여하게 된다.

연합뉴스

니원침 (8631) 김동우



이동통신사의 앙갚음?

아파트옥상중계기 철거요구에 대책없이 전원 차단... 통화 불편

아파트 주민들이 이동통신사 중계기 철거를 요구하자 이동통신사들이 별다른 대책 없이 중계기 전원을 꺼버려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14일 광주시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주민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이동통신사가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이동통신 중계기의 전원을 차단하면서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 수신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이 아파트 주민들은 2006년래부터 아파트 한 층에 6개의 통신중계기가 설치돼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전자파 피해를 우려한 주민들은 주민투표를 진행해 210여 세대 중 143세대 찬성으로 중계기 철거를 의결했다.

주민 대표 최모(45)씨는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한 이동통신사가 ‘중계기를 철거하면 통화가 안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지금은 휴대전화 신호가 약해 전화가

오면 배란다까지 뛰어나가 손을 뻗어야 통화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이동통신사가 별다른 대책 없이 ‘한번 당해보라’는 식으로 중계기를 꺼버린 것 아니냐고 주민들은 입을 모은다.

한 주민들은 “다세대 주택인 아파트에 따르면 지난달 6개나 중계기를 몰아셔 설치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대체 부지를 알아보지 않고 무작정 중계기를 꺼버려 아파트를 섬으로 만들어 버린 것은 이동통신사의 횡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이동통신사 시설관리임직원은 “일부 주민이 선포해 민원을 제기해 중계기 전원을 껐다”며 “중계기를 옮기려 해도 마땅한 장소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비가 어디론가 옮겨야 하는데 장소는 찾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이달 비용도 만만치 않고 예정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난처하기 때문에 신중히 대처하려고 한다”고 해명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목포대학교 30대 실종 자살 의심... 수색 나서

지난 6월말 개통 이후 3명이 자살한 목포대학교에서 또 자살 의심자가 발생해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14일 목포해양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25분께 목포대학교 중간 지점인 1번교과 주탑 밑에서 정모(33·광주시)씨의 차량이 순찰 중이던 경찰에 발견됐다. 경찰은 차량 뒷좌석에 정씨의 신변증 등이 놓여있는 점 등으로 미뤄 정씨가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무술 유단자가 붕 허투르고 돈 훔쳐

○20대 무술 유단자가 밀집점 붕으로 편의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나다가 경찰서행.

○14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송모(20)씨가 지난 5일 새벽 4시50분께 광주시 서구 삼촌동 한 마트에 침입해 종업원 윤모(22)씨를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밀집점붕으로 폭행한 뒤 현금 91만원을 훔쳐 달아나려는 것.

○특수절도 전과 1범인 송씨는 유도와 합기도 유단자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전 해당 마트에서 카드로 담배를 구입했다가 얼굴을 알아본 종업원의 진술로 달미.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재한 일본인 여성들로 구성된 ‘한일 역사를 극복하고 우호를 추진하는 모임’ 광주·전남지부 회원 100여명이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 2가 광주우체국 앞에서 증군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사회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광주·전남 거주 여성들 집회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오전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는 일본 전통 의상과 한복 등을 입은 일본 여성 100여명이 모여 들었다.

이날 광주시 집회를 연 이들은 서한을 통해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먼 이국 땅에서 참담한 실상을 겪어 온 것에 대해 일본인으로서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주한 일본대사에 한 일 양국의 우호를 위해 노력해 달라 고 탄원서를 제출했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특별 조사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며 “앞으로도 120일동안 1인시위를 통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Lotte JTB, listing various properties like 'Buckeye Management', 'Shanghai/Hangzhou/Dongli', 'Samcheongsan', etc., with prices and features.

광주건립 : 롯데백화점 광주점, 롯데마트 첨단, 롯데마트 상무, 롯데마트 월드컵, 롯데마트 수완, 북구점, 기아점, 무등점, 문화전당점, 서광점, 매월점, 광산점, 농성점 ...